

설교제목: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자!”

설교본문: 요한복음 21 장 17 절

올해 교회표어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이다.

물론 여기 계신 분 중,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혹 예수님을 많이 몰라도 예수님은 사랑한다고 모두들 말씀하실 것이다.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라고 말씀을 드린다.

그 이유는 이 시대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때문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분명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한다.

아니, 언제 예수님이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자는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리고자 한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권세 있는 말씀,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너무 좋아서 따른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로 하신 메시아로 믿고 따랐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는 단순히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넘어 자신의 모든 세상 일들을 버리고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따르는 사람도 있었다.

예수님이 어딜 가시든, 함께 하며, 심지어 먹고 마시며, 자며 예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이들도 있었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은 이들 중, 열두 명을 따로 세우셔서 특별 제자로 삼으셨다. 이 열두 명은 제자 중에 제자로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한다고 스스로 자부하였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죽으라고 명하시면 그 명령대로 죽을 생각도 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런 까닭에 특별히 예수님이 택한 이 열두 명은 더욱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또한 서로 다투기도 하고, 시기질투도 하였다.

복음서를 보면 이런 열두 제자들의 모습이 숨김없이 다 소개되고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어 영광 받으실 때가 가까워지자 전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해 못하고 소화 못하는 말씀을 자주 하시게 되었다.

그것은 제자들이 도저히 상상도 못하고 감당도 못할, 십자가에 죽으실 일과 삼일 만에 부활하실 일이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 갈등하게 되었고,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떠나기도 하였다.

내가 계속 이 분을 따라 다녀야 할 분인가? 왜 저런 말씀을 하시는가?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여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 아닌가?

열두 제자도 그래서 고민이 많아지게 되었다.

그 중, 가롯 사람 유다는 얼른 예수님을 포기하고는 예수님을 떠나고자 결심한다. 그리고 떠나기 전, 뭔가를 챙길 생각으로 기회만을 엿보기 시작하였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갈등하는 모습을 보셨다. 특별히 열두 제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의심하는 모습을 보셨다.

예수님은 열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말하더냐?

그리고 이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으셨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질문하셨는데, 그것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한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지금까지 따랐는데, 과연 너희는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는 말씀이었다.

속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회의와 의심이 생겼지만,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여전히 사랑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 중, 베드로는 모든 제자 중에 자기가 가장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였다.

곧 내가 예수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라고 어떻게 보면 잘난 체 한 것이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자기가 제일 사랑한다는 베드로의 말을 칭찬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전혀 받아들이거나 소화 못하는 말씀을 거기에 여전히 덧붙이신다.

내가 사람들에게 미움 받아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내가 삼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 용납할 수 없는 말씀이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끝나는 일이며, 부활은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이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는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고백한 입술로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미워하고 저주하였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는 베드로의 말은 거짓이었을까? 분명 베드로 입장에선 거짓이 아니었는데, 거짓이 된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이 삼일 만에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서 다시 어부 생활을 하게 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부활하신 후,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잡은 고기를 가지고 아침을 먹기를 원하셨다. 그 아침식사 시간, 제자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부인할 제자들은 한 명도 없었다.

제자들은 몹시 죄송하고 송구하고 미안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정말 불편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잡히실 때,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도망갔었기 때문이다.

그 중 베드로는 불편할 정도가 아니라 죽을 정도로 괴로웠다. 이 세상에서 내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자기가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릅니다. 미워합니다. 저주합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당연히 식사는 예수님과 같이 하지만 모두들 입은 있어도 말을 할 수 없는 정말 불편한 시간이었다.

그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입을 열어 말씀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에 베드로는 몹시 죄송하고 면목 없지만 예수님에게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대답하였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의 질문에 몹시 괴로워하며 힘들어하며, 죽을 맛을 느끼며 베드로가 대답한 말이다.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였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미워한다고 말했다.

예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조금 시간이 지나 모두들 뭔가 이런저런 생각으로 골몰해 있을 때,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에게 같은 질문을 하셨다.

죽을 맛이다. 차라리 야단치시고 때리고 저주하시고 혼줄 내시지,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목이 막혀 나오지도 않는 음성으로 대답하였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에게 같은 질문을 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예수님이 이와 같은 질문을 하시니 베드로는 차라리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고통을 느낀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그러나 사랑이 아니었다. 사랑했는데, 사랑이 아니었다.

뭐가 잘못되었는가?

이 고민이 베드로만의 고민이 되겠는가?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의 고민이 아니겠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 사랑은 진짜 사랑이다.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런데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사랑인 것 같은데,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도대체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은 무엇이 다를까?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의 차이를 발견해야 한다.

그 사랑의 차이를 발견하고자 몸부림치지 않고 여전히 나는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하고 있다고만 믿는다면 혹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

“너 누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나타나심으로 그 사랑을 확인하셨다.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우리들의 과제이다.

우리들이 애써 찾아야 할 일이다.

우리가 힘써 찾아야 할 일이다.

예수님! 정말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한 해가 되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한다.